



환호 27일 오후 서울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박지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TV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침통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 배은희 대변인 등 지도부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4·27 재보선결과 발표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우파의 반란’ 정치권 대요동

전통 보수 텃밭서 힘받은 손학규, 야권 대권주자로 입지 확고 한나라 총체적 패닉 쇠신론 분출... MB 조기 레임덕 가속화도

4·27 재보선이 민주당 등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정치권은 이에 따른 후폭풍에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진정한 민주당의 리더로 거듭난 것은 물론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민주당도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물론 막막해보이던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활로를 찾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추

후 정국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이번 재보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교체 및 조기 정당대회 주장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여기에 당 운영을 주도해온 친이(친이명박)계가 구심점을 잃는 대신 친박(친박근혜)계의 입지가 강화되고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차기 당 대표로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둘러싸고 친이계와 친박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보선 패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재·보선은 전적으로 당이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장을 포함, 일부 수석비서관의 교체와 함께 개각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권연대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노동당은 호남에서의 세력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천에서의 야권연대의 성공은 내년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지역 2~3곳에서의 야권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권의 재·보선 승리로 내년 총선 전망이 더욱 밝아진 것은 물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대선 구도에도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며 “반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내홍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총선은 물론 대선구도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당선자 인터뷰

분당을 손학규 “이번 승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기쁘고 감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국민을 통해서, 분당의 시민을 통해서 표현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가 확정되자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나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승리는 저 개인 손학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승리만도 아니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보선 최대 승자로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 확보한 손 대표는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라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거운 책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제 우리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출발을 한다”며 “이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민생을 살리고, 이 땅의 정의를 세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함께 잘하는 나라를 만들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제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존경 안고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더한 각오로 우리 스스로를 재검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지역인 분당에서도 서민들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민생이 어렵다”며 “중산층을 더욱 특별히 하고 반칙과 특권의 사회를 물리치고 정의가 있는 사회, 갈등과 분란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 김선동 “야권 연대의 승리... 진보정치 이끌 것”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연대를 지지해주신 순천 시민들께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광주·전남 최초로 민주노동당 지역 국회의원 탄생 신화를 이룬 김선동(43) 순천 국회의원 당선자는 “야권연대 정신을 숭수수범해 진보정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려준 민주당 지도부에도 감사사를 표한다”며 “순천 등 호남은 과거부터 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곳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호남이 민주정치와 더불어 진보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신을 지지해준 순천 시민들에게 “저의 당선은 순천시민 모두의 승리이자 야권연대와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준 민심의 선택이었다”라며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이곳 순천의 민심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결국 야권연대의 승리와 정권교체 실현의 희망을 온 국민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대학 재학중 서울 미문화원 점거투쟁을 벌이다 제적된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 제적 이후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광주 기아자동차, 광주 금호타이어 하청업체 등에서 용접공 생활을 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한 특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김동기기자 kimho@동부취재본부=김동욱기자 ejkim@

화순 홍이식 “흠어진 민심 화합시키는 게 최우선”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흠어진 민심을 화합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하겠습니다.” 홍이식(52) 화순군수 당선자는 27일 “군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앞으로 화순군의 대통령을 이루고 군민 화합에 최우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여 년에 걸친 ‘부부·형제 군수’의 두 집안 싸움을 끝낸 홍 당선자는 갈등과 혼란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숙제를 안은 만큼 ‘민심 화합’에 군정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 그는 이를 위해 “역대 군수를 군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해 지역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복안까지 제시했다. 홍 당선자의 승리는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임 전 군수에 맞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에 “형제 군수”의 지지까지 이끌어내고,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투표 열기가 지지로 이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분석이다. 홍 당선자는 이를 의식한 듯 “선거과정 있었던 모든 중요하고 미흡한 점을 털고 이제는 오직 화순지역 민심화합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전념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 중 군민께 한 약속은 최대한 지켜나가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원 화순 2 구북구·목포시의원 최기동



| 득표수 (★는당선자) | |
|-------------|------|
| 이름 | 득표수 |
| ★구북구(민) | 6847 |
| 김기철(노) | 4246 |



| 득표수 (★는당선자) | |
|-------------|------|
| 이름 | 득표수 |
| ★최기동(민) | 3442 |
| 전금숙(무) | 3322 |

빛의만평

- 김중두



끗발 없으면 내돈도 못찾는 나라

이명동대교신 Dream Hub GUNSAN

동풍·우창·동경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名品도시 群山

59 창사 광주일보 1952~2011

새만금시대를 선도하는

녹색성장 미래첨단 산업도시 군산건설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주인공인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 GUNSAN CITY